

문화전당 공사 어디까지 왔나

별관문제 연내 매듭 안되면 건립사업 자체 어려울 수도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정률은 20%에 머물러 있다.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등 보존이 결정된 상부관 인근 신규 시설에 대한 공사는 예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민원실, 옛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리모델링, 별관 뒤에 들어설 어린이도서관과 아시아문화(정보)원 건립 등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517억원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이 논란이 전체 공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7년 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당 건립 예산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4년 30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 911억원, 2006년 1927억원, 2007년 656억원, 2008년 7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09년에는

로 전당 건립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2012년 부분 완공' = 일단 광주시는 전당 내 5개 주요 시설물, 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어린이도서관 중 완공되는 시설물은 먼저 개관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등이

배정 사업비 불용처리...예산도 매년 감소

공정률 20%...광주시 "2012년 부분 개관"

◇문화전당 건립 일정

- ▲2005.12.02 당선작 우규승의 '빛의 숲' 선정 발표
- ▲2005~2007년 랜드마크 논란으로 완공 시기 2012년으로 연장
- ▲2008.06.10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기공식
- ▲2008.06.24 시민대책위 전담농성 돌입
- ▲2008.12.09 추진단 잠정 공사중지 선언
- ▲2009.02.25 공사 재개
- ▲2009.06.03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10인 대책위 결성
- ▲2009.09.22 문화체육관광부와 10인 대책위 별관 부분보존 합의
- ▲2010.07.29 추진단 별관 보존방향 발표 (54m 중 30m 보존)
- ▲2010.12.23 추진단 별관 보존방향 발표 (철거대상 24m 골격 유지 및 강구조물 보완)

5·18 민주광장에서 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연결하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전당 전체의 모습도 아직 베일 속에 가려있다.

◇지지부진 공정률 2014년 완공?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내 옛 도청 별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돼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랜드마크 논란과 옛 도청 별관 문제로 각각 2년씩 시기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2013년에 출범할 새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옛 도청 별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전체 공정 및 예산 배정 등을 감안할 때 완공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원래 공정보다 더 신속하게 공사가 진척될 수 있을 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가 국내 외 유사한 문화복합시설과 차별화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실정이다.

전체 7000억원이 드는 전당에 올해까지 3257억원이 집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부터 3년 동안 1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액은 4774억원이었으나 옛 도청 별관 문제 등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무려

300억원, 2010년 200억원, 2011년 4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옛 도청 별관 문제가 부각된 지난 2007년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해 이월된 금액이 498억원, 2008년 542억원, 2009년 298억원, 아예 쓰지 못하게 된 예산은 지난 2008년 536억원, 2009년 405억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억원이라도 더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에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역에 막대한 손실

들어서는 문화창조원이나 대극장 및 중극장이 있는 아시아예술극장, 리모델링 대상인 5·18 관련 시설물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내년 중 5·18 관련 시설물의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옛 도청 별관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당을 부분이라도 개관하면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해 중앙정부에 전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탄한파·폭설... 얼어붙은 광주·전남



영광 15cm 등 전남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26일 영광군 법성면의 한 포구에서 어부가 배 위의 눈을 쓸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곳곳 교통사고·동파 피해...오늘부터 추위 풀려

지난 25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3도까지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기록됐다. 이틀째 맹위를 떨친 '성탄 한파'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과 26일 광주와 전남·북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설량(26일 오후 5시 현재)은 영광이 15cm로 가장 많았으며 고창 12cm, 군산 11.

8cm, 정읍 9.5cm, 목포 7.4cm, 광주 5.1cm, 진도 4.8cm, 전주 2.5cm를 보였다. 수은주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맹추위를 이어갔다. 25일 장수가 영하 12.4도로 가장 낮았고 영광이 영하 10.7도, 전주·남원이 영하 10.3도, 고창 영하 9.6도, 광주도 영하 9.3도까지 떨어져 광주와 전남·북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전후의 분포를 보였다. 한파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26

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 유동과 용두동, 서구 금호동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 밤광산구 교통동과 북구 일곡동에서도 접촉사고가 잇따랐다. 눈과 함께 강풍·홍랑도 몰아쳐 전남지역 육지와 섬을 잇는 55개 항로 87척 중 23개 항로 32척의 여객선이 통제됐다. 광주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와 북구의 주택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도 이어졌으며, 전북지역에서도 38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날 새벽 고창군에서 양식장 승어 2000마리가 폐족음을 당해 물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7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새벽 한때 눈(강수확률 60%)이 오다 그칠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9도로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다"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李대통령 건강법은 쌀밥에 날계란

올해 칠순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 관리법은 뭘까. '1박4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정도로 뚱이 못지않은 강철 체력을 지닌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건강 비법은 '많이 걸기'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항상 만보계를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 특히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은 반드시 1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한다.

오랜 취미이자 특기인 테니스 경기를 매주 두 차례 빼놓지 않고 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테니스는 20대 청년도 몸에 무리가 올 만큼 격한 운동이지만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2~3게임 정도는 가볍게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도로 피곤할 때 이를 푸는 방법은 '70년대 서민'의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피로가 누적됐다는 적신호가 오거나 감기 기운을 느끼면 식사 때 금방 지은 뜨거운 쌀밥에 날계란과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다. '날계란 간장 비빔밥'을 먹고 잠을 푹 자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피곤이 풀린다고 한다.

건강한 이 대통령에게도 한 가지 약점은 있다. 청년 시절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을 정도로 목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손수 만든 배즙차를 상복하고 집무실과 회의장에서도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신다. /연환뉴스

1억불 수출 김 "지구 18바퀴"

작년보다 30% 늘어...64% 전남서 생산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24일 국내산 김이 사상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해 참치, 오징어, 인삼 등에 이어 1억달러 대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전국 생산량의 64%인 5500만속(한 속은 100장)이 전남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전남이 국내산 김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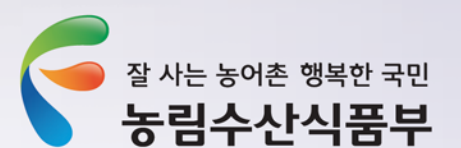
aT는 "국산 김의 수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30%나 늘어나면서 지난 21일 현재 1억달러를 넘어

섰다"면서 "1억달러 어치는 분량으로는 약 9000t으로, 마른 김 9000t을 나란히 늘어놓으면 길이는 72만2555km, 면적은 133.7km로 지구를 18바퀴나 돌 수 있으며 여의도를 15번 덮고도 남을 규모"라고 설명했다.

aT는 "지난 53년부터 시작된 김 수출은 일본이 양식에 성공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90년대만 해도 수출규모가 연 5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윤기자 dok2000@

축산농가,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구제역 조기종식과 빠른 청정국 회복을 이룩합시다.



- 기존의 매몰처분 방식과 병행하여 일부지역에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예방접종은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과 예천, 경기 파주와 고양, 연천에 한해서만 실시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처분합니다. 다만 확산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축산농가는 자신의 농장은 자신이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전과 같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한 소는 예방접종을 한 후 1개월 뒤에 구제역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출하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구제역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조기종식과 빠른 청정국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